

화순군, 고강도 청렴과제 추진

부패행위 '사전 차단'에 주력...31개 시책 추진

'청렴문자 알리미' ·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화순군이 더 이상 부정부패가 발붙일 수 없도록 부패 척결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고강도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군은 '청렴문자 알리미' 제도를 운영해 취약 분야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취약 분야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보조금, 재정·세정, 인허가 업무 등이다.

군은 청렴문자 알리미 제도를 통해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등 취약 분야 업무 민원인에게 각종 부패·부조리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안내한다. 부패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민원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민원인과 공무원이 부패행위와 부정청탁을 신고할 수 있는 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

다. 민원인이 공무원의 갑질, 금품 요구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공직자가 민원인들로부터 각종 이권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 사실을 등록할 수 있도록 청탁등록시스템과 청탁금지법 신고·접수센터도 운영한다.

군정을 방문한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문 민원인의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문제점 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불허가와 반려 민원에 대한 처리 과정 등을 면담이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불만족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설명제를 함께 운영한다.



군은 지난 1월 2020년을 '청렴 정착 원년'으로 선포하고 '2020년 반부패 청렴 계획'을 수립해 31개 청렴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전체 직원의 청렴서약, 청렴실천 결의대회, 부서별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 등을 통해 청렴문화 정착 의지를 다지는 등 내부 자정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20년을 '청렴 정착 원년'으로 선포한 만큼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청렴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청렴문화를 정착시켜겠다"며 "대외적으로는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내부적으로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순천시, 시립 청소년 교향악단 운영 폐지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은 2013년 4월에 창단된 시립 청소년 교향악단을 2021년부터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행정 낭비요인 최소화 및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폐지하고, 청소년 대상 '음악 영재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현재 관내 학교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지휘자와 단무장, 12명의 지도강사와 49명의 단원 등 총 6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강사 및 단원은 25명으로 단원의 약 40%를 차지한다.

지난 7년 동안 13회의 정기공연과 16회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했으나 인건비, 공연비 등으로 총 18억6천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됐고, 2020년에도 인건비등으로 3억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다. 전국적으로 시립청소년 교향악단 예산은 1억~2억원인데 비해 순천시는 3억~5억원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예산지출이 높은 편이다.

단원들의 경우도 해마다 20여명 이상의 탈퇴와 신규 입단이 반복되는 등 단원들의 평균 재직 연수 2년 미만이 70%를 차지하여 단원들의 교체율이 높아 음악수준의 향상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기공연에서는 성인 객원 단원을 채용하여 공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 학생 단원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본연의 연주 활동보다는 악기에 따라 강사 12명이 소수단원 1~5명 정도를 지도하는 개인교습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악단으로 준비공연이나 지역행사 등에 참여가 어렵고, 관외지역 학생이 30%, 관외거주 지도강사가 80%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시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 246개 지자체중 청소년 교향악단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12개뿐이며, 이중 서울시와 과천시와 청소년 교향악단을 성인 오케스트라로 변경 운영하고 있다.

이에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절감과 효율적 예술단 운영을 위해 2020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시립청소년 교향악단 폐지하고, 향후 악기 연주에 실력있는 청소년 육성을 위해 음악영재아카데미를 2021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순천시내 11개 학교에서 운영중인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례군, 법제처장에 제도 개선 건의

구례군이 지난 6일 오후 2시 구례자연드림파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2월 법제처 현장간담회'에서 김형연 법제처장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법제처 현장간담회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찾아내기 위해 열렸다. 지역경제를 살피는 목적으로 지자체를 방문한 것은 구례군이 전국에서 최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형연 법제처장, 김순호 구례군수, 자연드림파크 입주기업체협의회 오성수 대표 등 25명의 관계자가 참여하였으며, 자연드림파크에서 건의한 2건과 구례군에서 건의한 3건 등 5건의 법률·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였다.

주요 건의사항으로 ▲ 농업법인이 폐기물을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

차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규제 완화 ▲ 소규모영화관에 대해서는 한국 영화 의무 상영일 수를 정하는 스크린쿼터 적용 예외 ▲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기간을 지자체가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 매매에 의한 토지 분할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 ▲ 비도시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건축 시에는 건축 허가 시 설계도서 제출 의무 완화가 거론되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현장을 찾아 격의 없이 대화해 준 김형연 법제처장에게 감사하다"며, "건의한 사항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30년간 환경부의 미온적 태도로 진전을 없는 '구례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함께 건의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군 "빈집 활용해 소득 창출하세요"

빈집 등 유휴시설 활용 소득사업 대상자 모집

담양군이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소득사업을 추진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빈집 등 유휴시설 활용 소득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소유자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빈집·빈창고 등을 마을공동체에

서 맡아 관리 운영하거나 개인이 창업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마을공동체 및 소규모 공동체, 개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5년간 임대가능하고 지원 시 소득창출이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사업규모는 3필 이내로 마을공동체의 경우 5,000만원(자부담 10%) 이내, 소규모공동체 및 개인인 경우 2,500만원 이내(자부담 30%)로 숙박시설 및 카페·식당, 체험 교육센터 등의 사업유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유휴시설의 리모델링 등 인프라 구축을 위

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콘텐츠·프로그램 개발비 등이 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 후 해당분야의 전문가 및 행정, 주민과 함께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사업은 오는 13일까지 군청 풀뿌리경제과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군,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모집

곡성군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자를 2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취업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2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성군, '보성물' 녹차·키위 할인 판매



보성군은 2월 한 달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보성녹차와 키위를 최대 20% 할인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할인행사는 보성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직거래장터

보성물에서 진행된다.

주요 품목으로는 보성녹차 제품과 보성키위를 10%에서 최대 20%까지 할인하며, 신규 회원은 5,000원 적립포인트와 5% 구매 적립금과 상품후기 및 댓글작성

시 1,000원 적립금 동시에 지급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최근 신종 코로나 예방에 좋다고 알려지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녹차와 키위를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이번 할인행사를 기획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허버드의대 연구결과에 따르면 녹차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호흡기계 질병과 독감이 3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키위는 베타만 C, 식이섬유,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감기와 바이러스 등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보성=김덕순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